

올 2분기 가계소득 늘었지만 소비성향 '역대 최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서비스 업황 개선 등 일시적 영향 소비도 5.8% 늘었지만...물가 상승에 사실상 '제자리걸음'

2분기 가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소비 증가율은 절반에 그쳤다.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에 쓴 돈의 비중(평균소비성향)은 2분기 기준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 증가율은 0.4%에 불과했다.

상품·서비스 가격이 오른 탓에 가계가 소비에 쓴 돈이 늘긴 했지만, 소비 자체를 늘린 건 아니라는 의미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

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1천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2.7% 증가했다. 물가 상승 영향을 제외하면 6.9% 늘었다.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모두 2006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일상 회복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개선, 취업상 수 증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근로소득(5.3%)·사업(14.9%)·이전소득(44.9%)이 모두 늘어난 결과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1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5.8% 증가했다. 2분기 기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증가율이 높았지만, 소득 증가율(12.7%)에는 크게 못 미친다.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보다 5.2%포인트 하락해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인 66.4%를 기록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일시적으로 손실보전금이 약 2조원가량 지원되면서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며 "그러다 보니 소득과 소비 간 격차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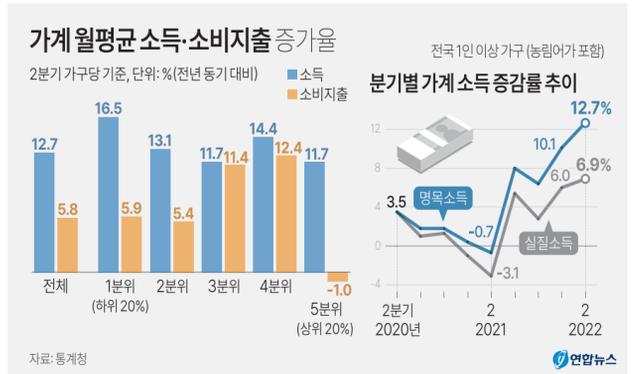
물가 상승에 따른 효과를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소비지출이 5.8% 증가한 것은 대체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고 가계가 씀씀이를 키운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2021년과 2020년 2분기에는 실질소비 증가율이 각각 1.3%, 1.2%였다.

예를 들어 교통 지출은 1년 전보다 11.8%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8% 감소했다. 운송기구연료비만 따로 떼어 보면 명목 증가율 27.8%, 실질 증가율 -5.4%로 그 격차가 더 도드라진다. 기름값이 워낙 올라 지출액이 불어나긴 했지만, 실제로는 자가용 운행에 있어 허리띠를 졸라맨 셈이다.

소비지출은 오락·문화(19.8%), 음식·숙박(17.0%), 의료·신발(12.5%), 교통(11.8%), 교육(11.1%) 등에서 늘었다. 반면 가정용품·가사서비스(-9.4%), 주거·수도·광열(-3.3%), 주류·담배(-3.0%), 식료품·비주류음료(-1.8%) 등에서 줄었



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가정 내 소비가 줄고 야외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2022 KJ 카드 콘서트 오는 10월15일 광주여대서 개최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2022 KJ 카드 콘서트'를 3년 만인 오는 10월15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다시 연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시작한 KJ 카드 콘서트는 코로나19로 2020년과 지난해 중단했다.

최고의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이승철과 다비치, 홍진영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KJ카드 전 회원(개인 및 기업카드)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오는 9월 14일까지 K포인트로만 콘서트 티켓을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매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9월 21일에 개별 문자 통지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K포인트가 없거나 부족 시에는 개인 신용카드 회원만 최대 2매까지 응모할 수 있다.

부족 포인트는 11월 결제일에 청구된다.

광주은행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고객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공연 문화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콘서트를 준비했다"며 "KJ 카드 콘서트가 지역 대표 공연 및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농협전남지역본부 18일 나주혁신도시 소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층 로비에서 '제8회 쌀의 날' 행사를 갖고 임직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쌀 소비 확대 캠페인을 전개했다. 쌀의 날(8월18일)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한 기념일이다. <전남농협 제공>

전남농협, 쌀 중요성 홍보·소비 확대 총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 '쌀의 날' 캠페인 전개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8일 제8회 쌀의 날을 맞이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1층 로비에서 임직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쌀의 날 홍보·소비 확대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과 전남 쌀 대표 브랜드 '풍광수토' 홍보용 쌀을 나눠주고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쌀로 만든 화환을 홍보하는 등 쌀 소비 확대 활동을 전개했다.

쌀의 날(8월18일)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한 기념일이다. 쌀 수확을 위해서는 여든 여덟(八十

八)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8월 18일을 정했으며, 올해로 8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전남농협은 매년 쌀의 날을 맞이해 소비자들에게 쌀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쌀 소비 촉진으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근심 걱정이 줄고, 소비자는 고품질 쌀 소비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남 쌀 소비 촉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1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C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2 북쪽이와 문틈으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3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4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정부, 사전약정 통해 감자 최대 6천t 수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 약정을 통해 감자 최대 6천t을 수매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가에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감자 재배면적을 늘리면 정부가 이를 수매해 비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이날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보다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새로 재배하는 농가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농지에 양파·마늘·배추·청양고추를 재배했던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정 시기는 가을감자의 경우 내달 30일까지, 시설감자는 11월30일까지다. 매입 시기는 가을감자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내년 1~3월이다.

매입 기준가격은 지난해 도매가격을 반영해 20kg 기준 가을감자 3만7천원, 시설감자 5만4천원이다.

정부는 기준가격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매입 시기에 도매가격이 이보다 오르면 추후에 인상분도 지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산세무서, 중기 세정지원 제도 설명회

광산세무서는 지난 17일 평동중합비 지니스센터에서 평동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이번 설명회는 3고(물가·금리·유가) 현상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이날 공성원 법인팀장이 강사로 나서 고용증대,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을 빠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공제·감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영세한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한 홍보도 실시됐다.

이중학 광산세무서는 "지역경제 버팀목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는 산단 입주기업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공제·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광산세무서는 광동산단에 이어 하남산단 등 관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 **ONE store**